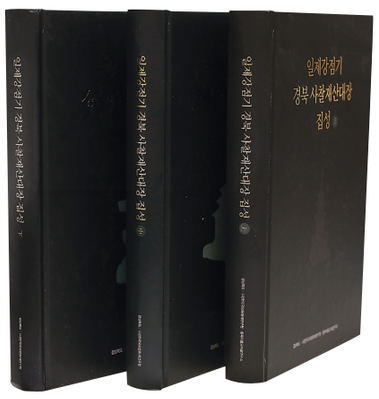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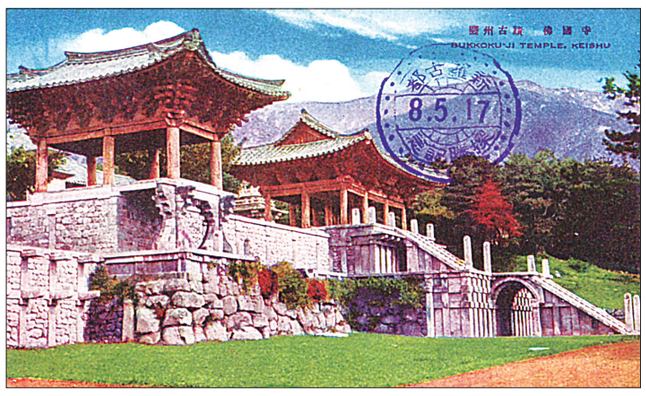
근대 경북 사찰재산대장 망라하다

경북도 · 한국국외문화재硏 '일제 사찰대장 집성' 완간

20개 시 · 군 144개 사찰 대상
최선일 위원 3년간 자료 조사
국박 소장 사찰재산대장 분류
유리건판 · 근대 엽서 등 수록





한국국외문화재연구소와 경북도가 완간한 〈일제강점기 경북 사찰재산대장 집성 上 · 中 · 下〉(사진 왼쪽)과 자료집에 수록된 불국사 근대기 사진 엽서(사진 오른쪽). 당시 사찰재산 현황과 모습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이 수록됐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의 근대는 일제강점기라는 아픈 기억을 갖고 있다. 그 암울했던 시기, 일제는 1911년 사찰령을 반포하고 한반도 사찰을 통제한다. 더불어 한국의 불교문화재에 관심이 많았던 일제는 사찰에 있는 불상, 불화, 법구 등을 재산목록 형태로 기록하게 했으며, 조선총독부 관보에 사찰 재산이나 문화재에 대한 조사 결과를 게재하기도 했다.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미군정을 거쳐 한국전쟁 등 수난의 역사가 이어지면서 우리의 불교문화재는 도난되거나 무단으로 반출됐다. 잃어버린 불교문화재를 찾는 가장 기초 자료는 아이러니하게도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기록해 놓은 사찰 관련 관보 기록과 사찰재산대장 등이다. 이 같은 기록들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돼 있으나, 체계적으로 분류가 돼 있지는 않다.

경북도(도지사 이철우)와 (사)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원장 김영재)이 최근 완간한 〈일제강점기 경북 사찰재산대장 집성 上 · 中 · 下〉는 근대기 경북 권역 사찰재산을 망라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일제강점기 경북 사찰재산대장 집성〉은 20세기 전반 개별 사찰에서 정리한 재산대장과 귀중품 목록, 조선총독부 관보에 수록된 재산목록 등을 정리한 것으로 기존 사찰에 어떤 성보문화재가 봉안돼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연구 자료다.

해당 자료집 기획 · 편찬 작업은 최선일 박사(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가 진행했고, 감수는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연구위원 도해 스님이 맡았다. 최 박사는 3년 동안 20개 경북지역 시 · 군 144개 사찰의 재산대장과 유리건판 사진, 기타 수집 자료들을 정리했고 3권의 자료집으로 엮었다.

〈일제강점기 경북 사찰재산대장 집성〉은 일제 시기부터 한국전쟁 전후 · 현대에 걸쳐 경북 지역 각 사찰 성보들의 명칭과 수량들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으며, 적요란에 조성연대와 작가가 기록돼 문화재의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최 박사는 이 같은 작업들이 도난 · 반출문화재의 환수를 위한 기초 자료가 된다고 강조했다. 최 박사는 "〈일제강점기 경북 사찰재산대장 집성〉은 1970~80년대 유출된 성보문화재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박물관이나 개인소장 성보의 본래 봉안처를 확인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면서 "한국전쟁 당시 안타깝게 망실된 성보문화재와 사찰 간 이운으로 봉안처를 옮긴 성보들의 전래 과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울산, 전남 지역에서도 사찰재산대장 집성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아카이브 작업이 활성화돼야 도난 · 유출 · 멸실 문화재의 환수와 복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면서 "향후 남 · 북한 사찰 재산대장을 조사 · 제작하는 것이 작은 바람"이라고 밝혔다.

김영재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장은 "현재 개별 사찰에는 자료가 거의 멸실된 상황이다. 이번 자료집을 통해 100년 전 성보문화재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가진다"면서 "또한 일제강점기 현황과 현재 사찰별 성보문화재 실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기 때문에 그간 도난 · 유출 · 멸실된 성보문화재 내역을 소상하게 파악해 향후 환수 · 복원활동에 중요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스승 · 제자 함께 푼 화엄경 진면목

월운 스님 · 신규탁 교수, 〈화엄경 초역〉 출간



스승과 제자가 학문적 인연으로 엮어낸 경전 번역 · 해설서가 출간돼 눈길을 끈다.

근간된 〈화엄경 초역〉은 현대 한국불교의 대강백인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이 번역하고, 신규탁 연세대 철학과 교수가 회편(會編)했다.

월운 스님과 신규탁 교수는 승 · 속을 넘어 학문적으로 교류한 사제지간이다. 월운 스님은 운허 스님의 제자로 한글대장경 번역을 이끈 강백이다. 동국역경원장 재임하던 2001년 〈한글대장경〉 총318책을 완간하기도 했다.

1978년 연세대 철학과 학생이던 신규탁 교수는 월운 스님을 남양주 봉선사에서 만난다. 처음 본 순간 평생의 스승으로 모시기로 마음먹은 신규탁 교수는 월운 스님에게 전통 한문불전 교육을 받았고, 불교교학을 연구키로 방향을 정했다. 이후 신규탁 교수는 도쿄대서 중국불교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해 모교의 교수가 됐다.

스승 월운 스님과 제자 신규탁 교수의 인연은 변함없다. 지난 2018년에는 스승의 구순을 기념해 스승이 쓰고 번역한 모든 간행물들을 수집 · 조사하고 이를 종류별로 분류하고 서지사항과 서문을 추려서 엮어 〈월운당가라사〉를 발간하기도 했다.

〈화엄경 초역〉 제1저자인 월운 스님은 80권에 달하는 방대한 〈화엄경〉을 '전통적 기준'에 입각해 추려서 번역했고, 제2저자인 신규탁 교수는 월운 스님 번역에 적용된 '전통적 기준'을 화엄철학에 근거해 자세히 설명했다. '전통적 기준'이란 화엄종 학승들이 사용하던 방법으로 신(信) · 해(解) · 행(行) · 증(證)의 설득 단계를 의미한다.

〈화엄경〉은 분량이 방대하고 내용이 조직적인데, 〈화엄경 초역〉은 분량을 1권으로 줄이면서도 조직적인 구조를 잘 살렸다. 또한 신규탁 교수가 부록으로 해제한 △현담으로 풀어 본 화엄교학 △금사자로 비유한 법계연기 △문답으로 가닥쳐 본 〈화엄경〉은 〈화엄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신성민 기자

'K-보존관리기술' 미얀마 바간 벽화에 전수

문화재청, 1월 11일 안내서 4종 제작 전달

벽화보존 · 구조 모니터링 담아
내년부터 역사 도시 조성 조력



문화재청이 발간한 4종 안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불탑의 도시 미얀마 바간 불교 사원 등에 한국 문화재 보존관리 노하우가 전수된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한국 벽화 보존관리 기술을 적용해 개발한 벽화보존처리 등 4종 안내서 전달식을 1월 11일 오전 10시(현지시간) 미얀마 바간고고학박물관에서 개최했다"고 1월 12일 밝혔다.

안내서는 △벽화보존처리 △구조 모니터링 △지표투과레이더운영 △사원 기본관리로 이뤄져 있다. '사원 벽화 보존처리 안내서'에는 바간 파야똔주 사원 벽화의 과학적 보존처리 방법을 담았고, '사원 구조 모니터링 안내서'는 2018년부터 진행 중인 파야똔주 사업의 구조안정성조사와 보수 보강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지표투과레이더 운영 안내서'는 신설 예정인 지표투과레이더(GPR)팀 활용에 대한 노하우를, '사원 기본관리 안내서'는 바간 유적 관리인을 대상으로 청소 · 관람객 관리 · 벽화 관리 등 기본적인 관리 노하우를 전한다.

미얀마 바간 지역은 한국 정부의 신남방 문화유산 공적개발(이하 ODA) 사업 거점지역으로서 문화재청에서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바간고고학박물관, 파야똔주 사원을 대상으로 세계유산등재 지원 · 지진피해 응급복구 · 보존처리 역량강화 · 벽화보존처리 안내서 제작 등을 지원했다.

이번에 제작된 안내서는 바간 지역 표준 안내서로 채택돼 현지 공무원, 관계자 등 대상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와 역량강화 교육 등에 폭넓게 활용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은 "경주, 백제 역사도시 구축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2025년까지 민난투 마을 대상으로 미얀마 ODA 2차 사업의 하나인 역사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이 조화를 이루는 모범 사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지원 사업은 정부의 신남방정책플러스, 핵심사업의 하나로 문화재청은 사업 기간동안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미얀마 바간은 버마인이 수립한 미얀마 최초의 통일왕조 바간(1044~1287)의 수도로 사용된 미얀마 최대의 불교유적지로 1287년 몽골 침입으로 멸망하지만, 아직까지도 3800여 개의 사원과 불탑들이 남아있어 지난 201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신성민 기자

국외소재문화재, 'BI'로 알린다

문화재청 BI 개발… 국외문화재 표식 활용



태극기 건곤 감리 응용
과거 잇는 상징성 강조

국외소재문화재들이 한국에서 온 것임을 알릴 수 있는 상징 로고가 새로 개발됐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외소재문화재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상징화하는 '브랜드 정체성(Brand Identity, 이하 BI)'을 개발했다"고 1월 14일 밝혔다.

BI는 정책 등 서비스나 기업의 제품 등을 이미지화한 상징마크나 로그 등을 의미하며, 이번 국외소재문화재 통합 BI는 국외문화재 보호 ·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새로 개발된 BI는 앞으로 각종 책자나 답사지도, 홍보 배너(띠 광고), 초청장 등 홍보자료와 외교공관 · 독립운동 사적지, 이민사 건물 등에 부착하는 사인물(현판, 인증서, 현수막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영국, 캐나다, 폴란드 등 외국 사례 조사하고 △영문 상표명 작명(네이밍) 개발(8월) △기본 BI 개발(9~10월) △응용 BI 개발(11~12월) 등 단계를 거쳤다.

기본 BI는 태극기에 사용되는 건곤감리를 바탕으로 양 끝을 뫼비우스의 띠처럼 연결해 국외소재문화재가 과거와 미래, 우리나라와 소재국 등을 이어주는 역사 · 문화 교류의 상징이 되도록 이미지화했다. 여러 명칭이 경합을 벌인 영문 상표명은 전문가 자문, 원어민 평가 등을 거쳐 우리나라의 역사성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Heritage of Korea'(헤리티지 오브 코리아)로 확정했다.

문화재청은 "국외소재문화재가 외국 소장자나 소장기관의 인식 개선을 통해 현지에서 자발적으로 보존 · 관리될 수 있도록 보존 · 관리 안내서 배포, 보수 · 복원 · 홍보 지원 등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제 105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중급과정 (6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칭, 관음시식, 구병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개 강 일 : 2021년 1월 26일(화)
◈ 강의일시 :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5시 ~ 6시 30분(90분) 담임교수 원장직강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번길 45(낙원동 243-3) 탑공공원 뒷편 ☎(02)741-0495~6